

#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우물가의  
여인



저자: Edward Hughes

삽화: Lazarus

각색: Ruth Klassen

번역: Helen Hwang

Alastair Pat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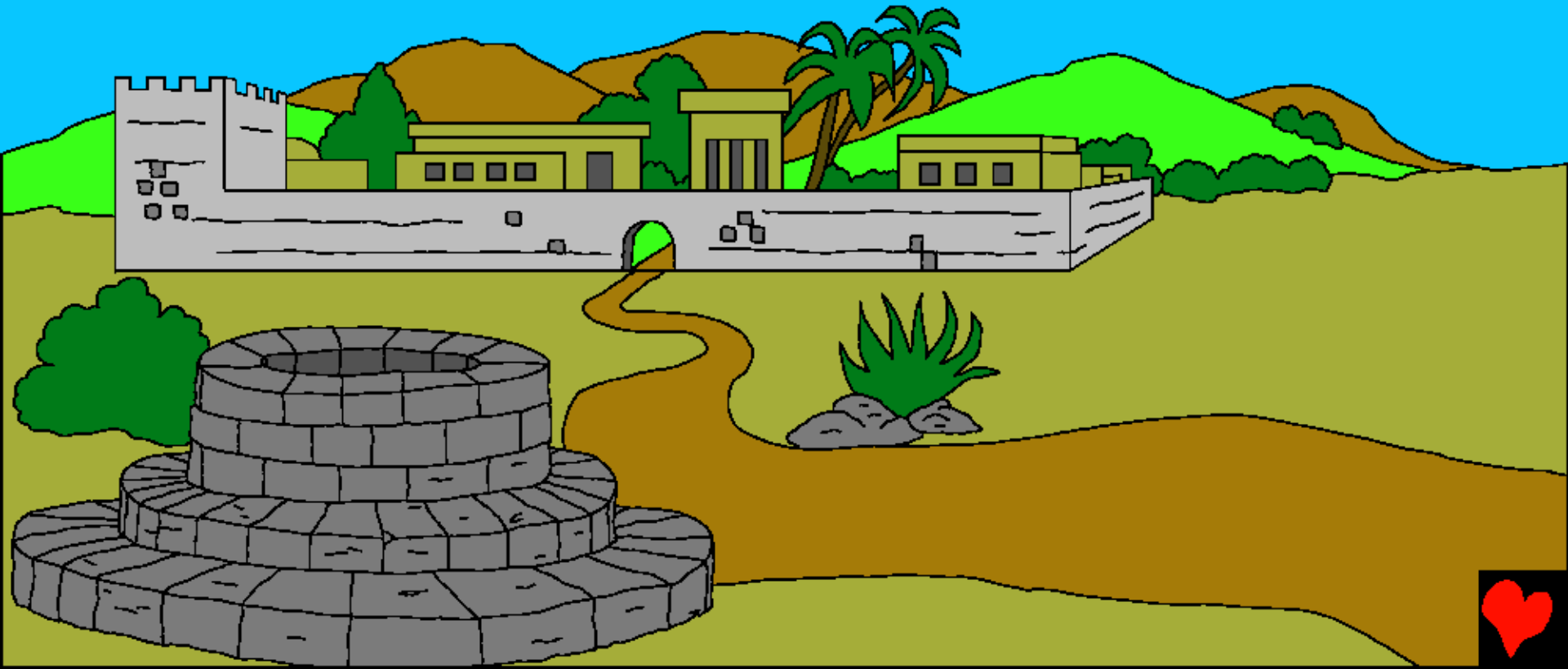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http://www.M1914.org)

©2020 Bible for Children,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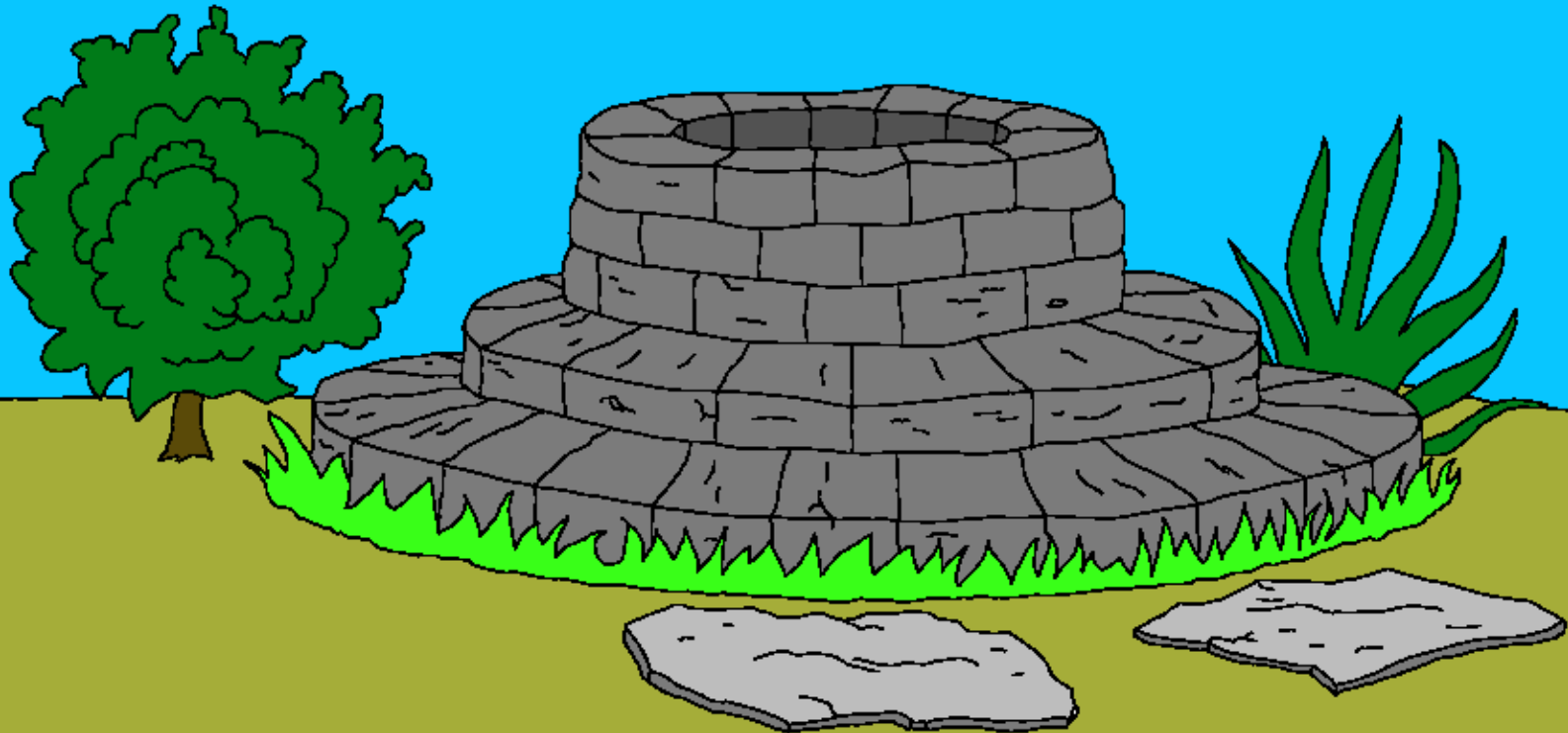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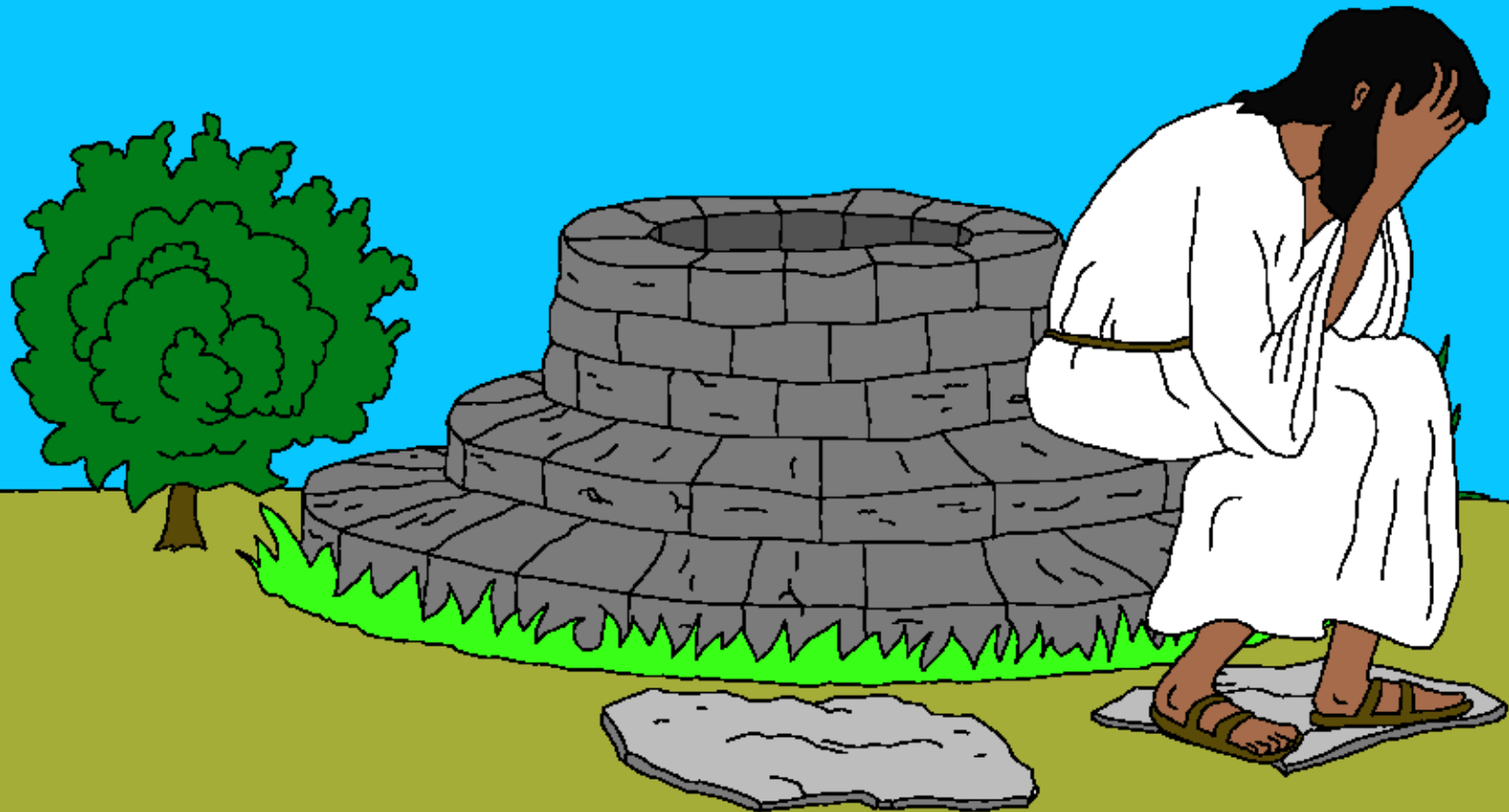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여행 중이었어요.  
수가라고 불리는 마을에 이르렀지요.



그 곳에 수가사람들이 먹는 물을 기르는 우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아주 오래 전에 판 우물이지요.



햇살이 따가운 날 정오쯤에 예수님이 지쳐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지요.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수가시대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잠시 혼자 계셨을  
때 수가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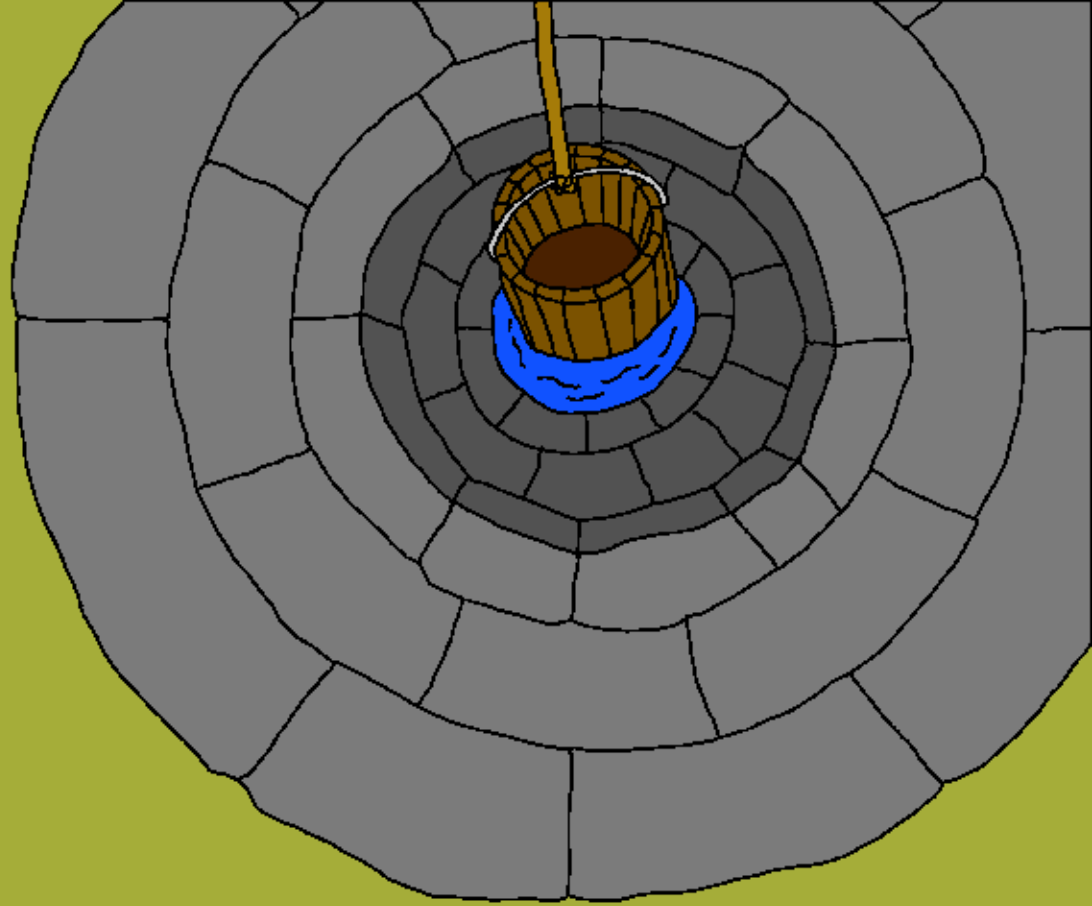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었어요.  
“선생님, 우물은  
깊고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자이신지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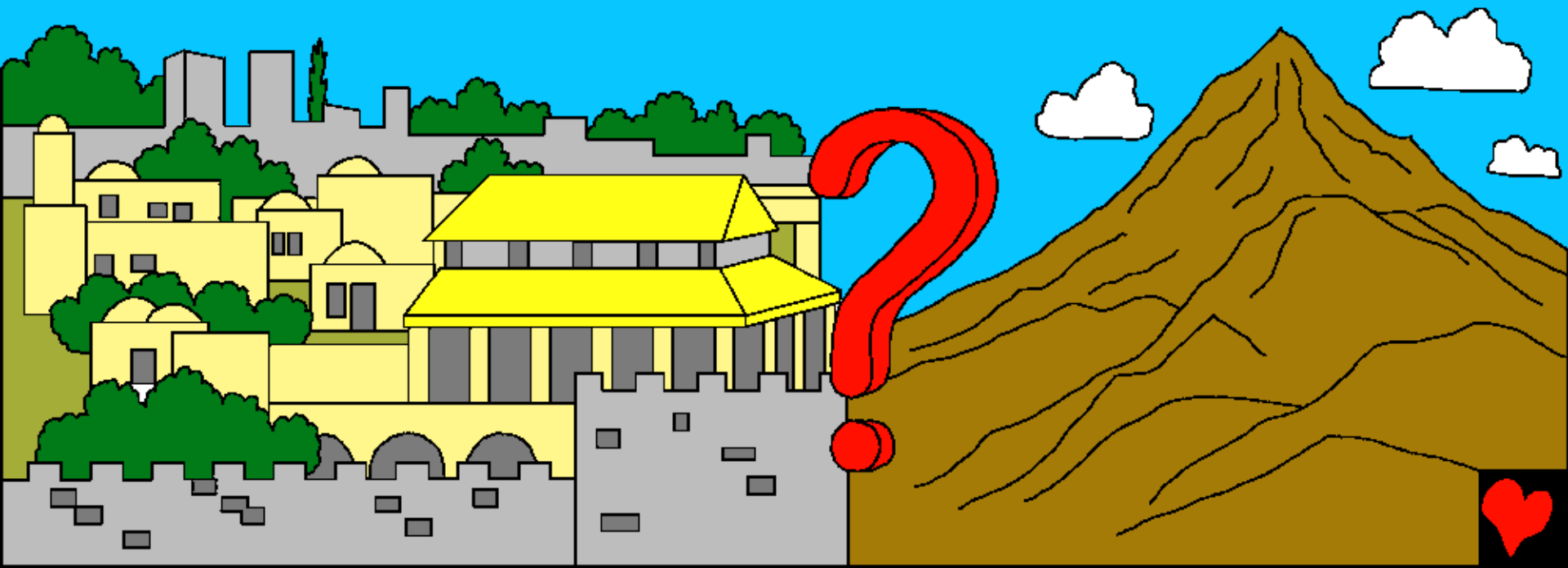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동안 다섯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사람마저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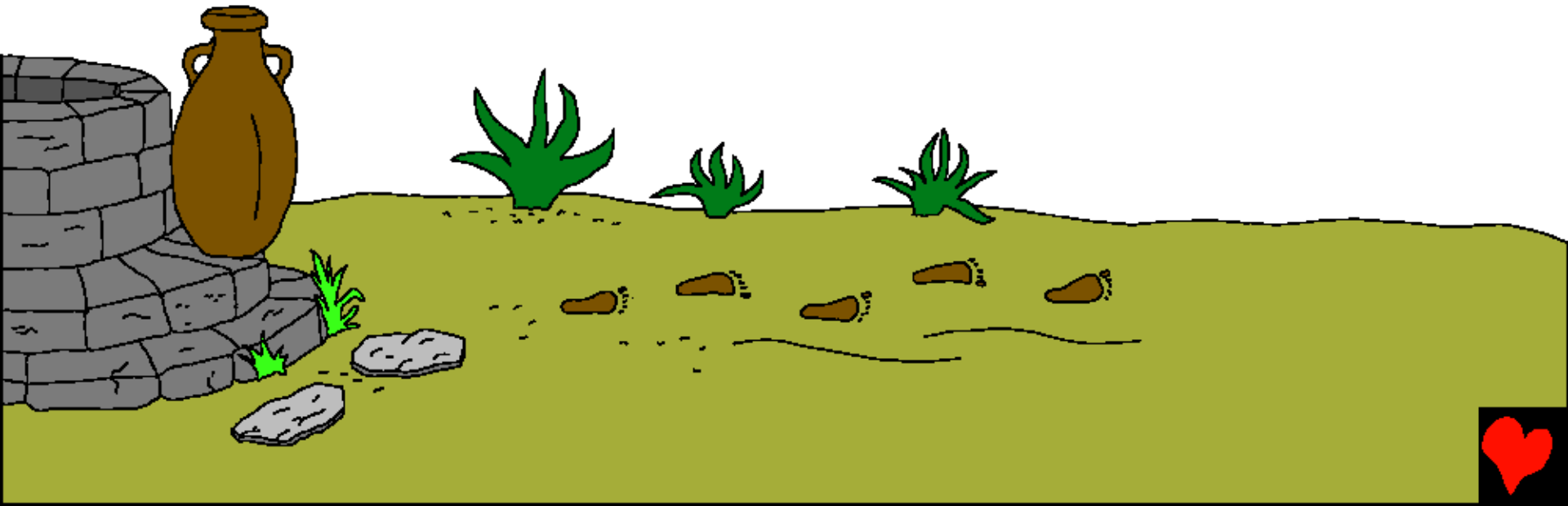


이에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겨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지에 대해 논쟁하려고 하였어요.

“예루살렘인가요? 사마리아의 거룩한 산인가요?” 그러자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드린다고 대답하셨지요.



“구세주가 오실 것을 제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답변하실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 제자들이 돌아오자 이 여인은 값비싼 물동이를 남겨두고 마을로 급히 돌아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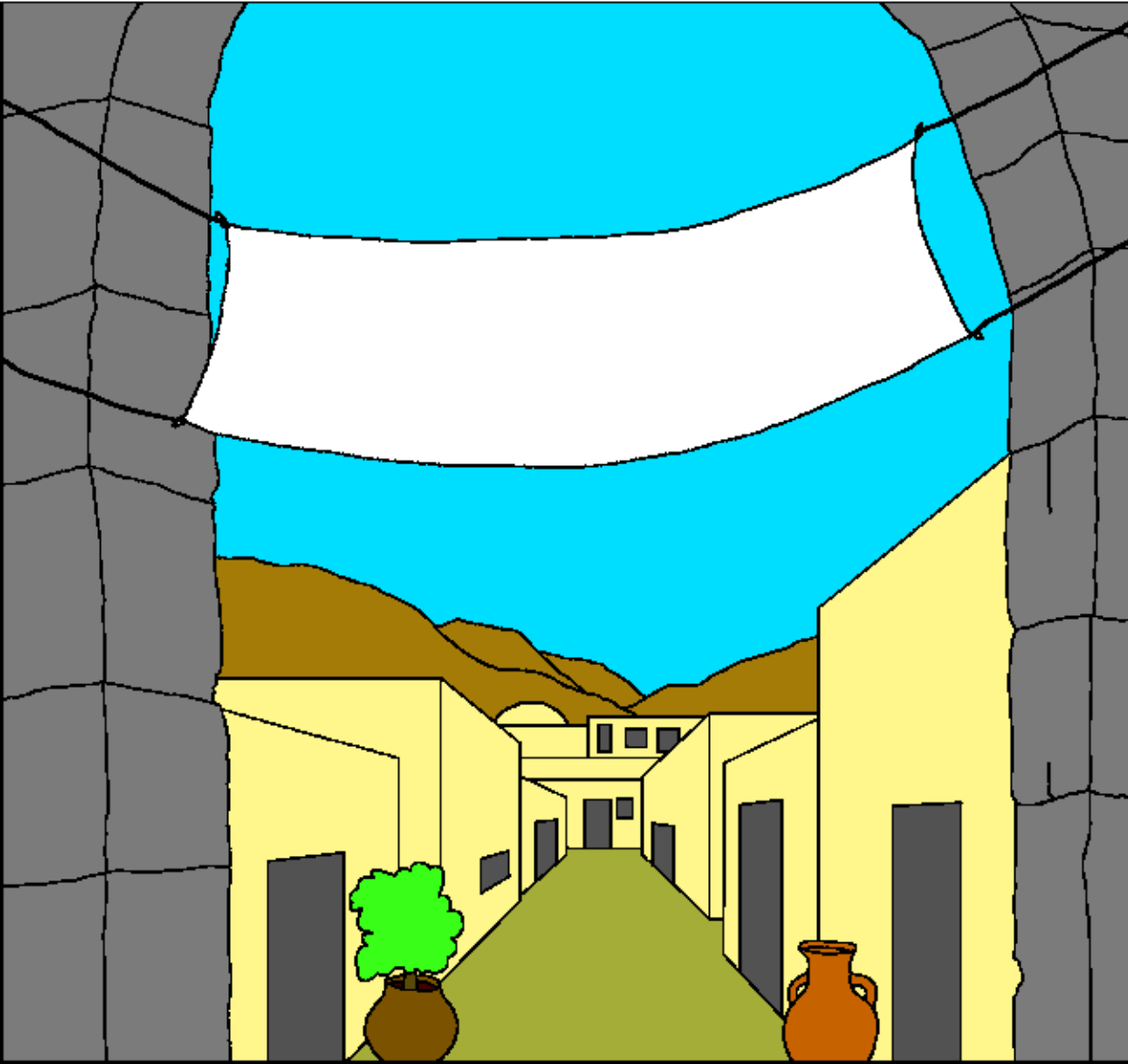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고 여인이  
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자 사람들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 와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식사하기를 권하자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어요.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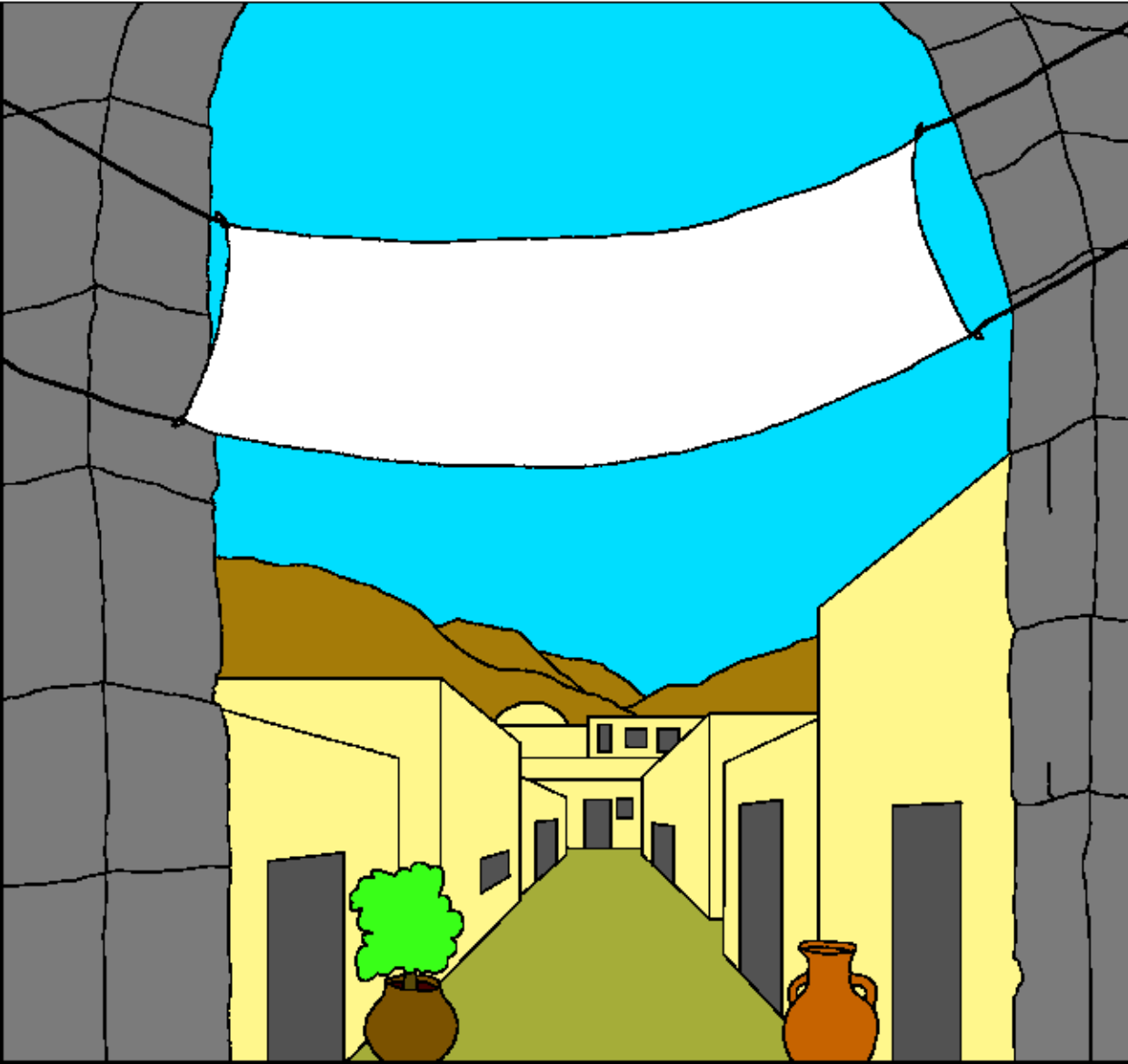


이 여인의 말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길  
요청하여 예수님은  
이틀동안 거기서  
지내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우리  
귀로 직접 들어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이며,  
세상의 구주임을  
아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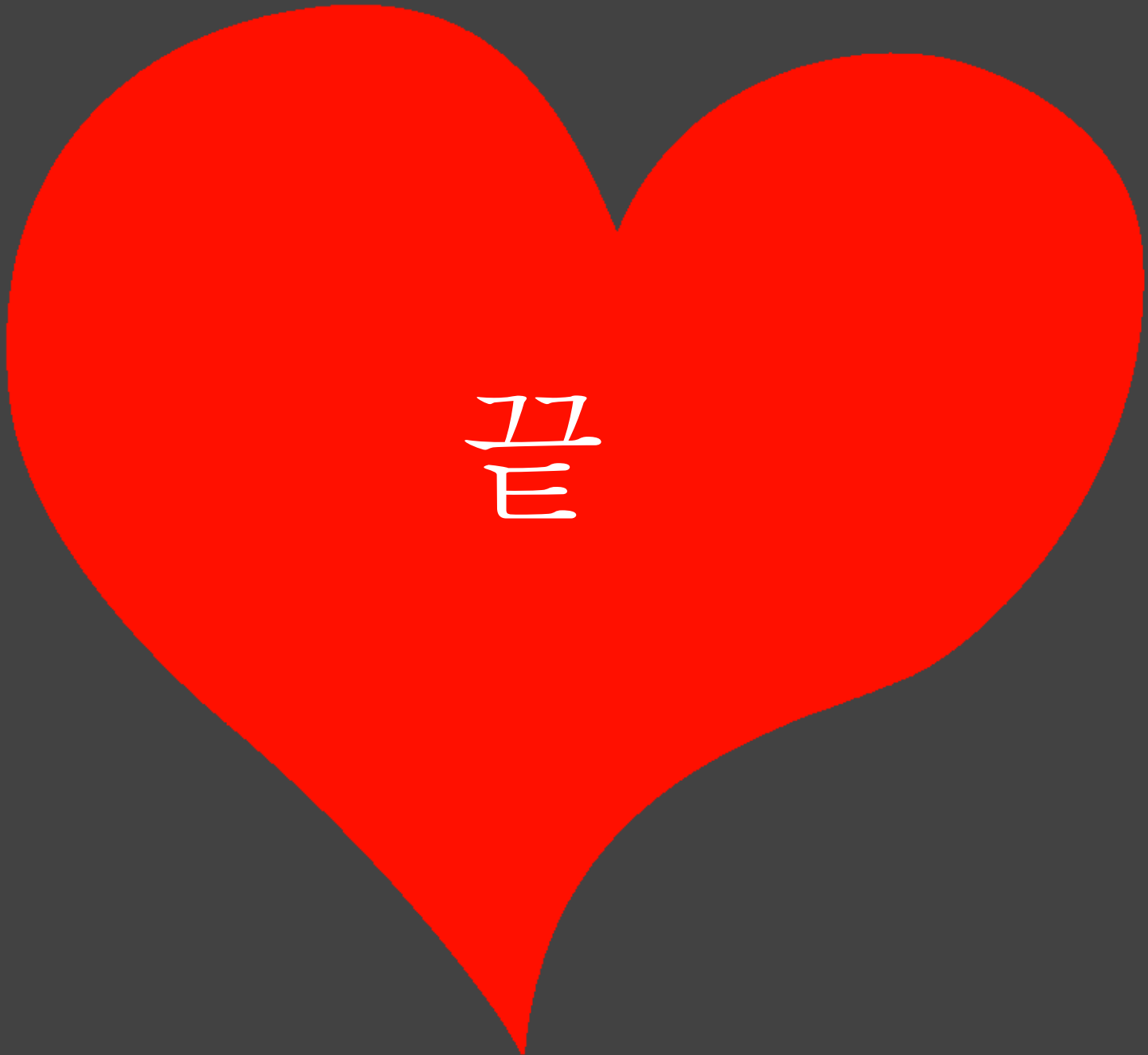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